

“현실 된 호모 헨드레드시대 효율적 재무설계 고민해야”

(평균 수명 100세)

“면밀한 예측으로 미래 접근 성공적 부의 지도 그려가길”

축사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예정
공적연금에 노후 의존 말아야
현명한 자산관리 중요성 커져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사들이 다양하고 효율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금융감독당국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며 “고령자들이 금융 소외자가 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꾸준히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현명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김 부원장은 “노인 연령기준의 상향조정은 곧 연금수령기간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한다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메트로의 포럼이 여유롭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하며 “고령화 사회와 100세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재무 설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개막사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코로나19, 블랙스완의 출연
빅데이터 등으로 미래 분석
포럼, 다양한 방식 노력 일할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20일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개막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공적인 부의 미래를 그려나갈 길”을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메트로경제가 웨비나로 주최한 ‘2021 100세 플러스포럼 시즌2’에서 “2년 전만 해도 웨비나 형식의 포럼은 생소했지만 이제 일상화됐고 더 편리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라며 “이처럼 변화의 물결은 우리 삶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 고령화와 재테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의 ‘부의 지도’. 즉, 돈의 움직임이 어떻게 재편될지, 어떤 변화를 겪을지는 누구도 정확히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상황을 ▲유동성 폭발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암호화폐의 부상 ▲부동산 살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될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단

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초기, 공포에 떨던 때를 되돌아보면 인간 예지력의 한계를 절감할 수 있다”며 저명한 미국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를 예시로 들었다.

이 대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그려낼 부의 지도는 어떤 것인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는 어떻게 흘러갈지 일체 언급이 없었다”며 코로나19를 ‘블랙스완의 출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다양한 방식의 노력, 탐색과 분석, 연구와 토론, 빅데이터 및 자금흐름의 분석 등 면밀한 예측을 통해 접근해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 포럼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해 보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이후 탄생활 부의 지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1.1만대 더 늘린다

전기차 예산 1219억 추가
올해 총 2만2980대 보급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1만1201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 예산 1219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하반기 국내 전기차 제작사의 다양한 신차 출시에 따른 수요 급증에 대응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대중교통과 배달용 이륜차 등 상용차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하반기 전기차 추가 보급을 결정했다.

이번 추가 보급 물량은 ▲민간(개인·



서울시가 오는 28일부터 1만1201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보급한다. /뉴스1

법인·기관) 부문 1만582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619대. 차종별로는 ▲승용차 9139대 ▲화물차 495대 ▲이륜차 948대 ▲택시 330대 ▲버스 289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전기차 보급 예산으로 1419억원을 확보해 전기차 1만1779대를 보급 중이다. 6월15일 기준 79.3%가 접수됐다. 특히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의 경우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기로 100%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다.

하반기 1만1201대가 추가 보급될 경우 올해에만 총 2만2980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예정이다. 하반기 추가 보급 물량과 달라진 차종별 보조금 지원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등재된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추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

고양시, 성사혁신지구 사업 착공 시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4곳 중 한 곳

고양시(시장 이재준)에 조성되는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이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돌입한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에 공공주도로 주거·상업·산업 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성사 혁신지구는 2019년 말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로 지정한 4곳 중 한 곳으로, 같은 국가시범지구 제1호로 선정된 서울 용산·충남 천안·경북 구미 중에서 사업성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당초 7월 19일에 ‘고양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제1호 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취소했다. 대신 이재준 고양 시장이 착공 준비가 한창인 사업부지를 방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전통시장 판매대 ‘보기 쉽게’ 바꾼다

서울시, 하반기 시범 운영

서울시가 전통시장 판매대를 보기 쉽고, 고르기 쉽고, 알기 쉽게 바꾸는 ‘안심디자인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전통시장 한 곳을 바꿀 계획이다.

그동안의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주차장 확보, 화장실 개선, 차양시설 등 공동 기반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가장 밀접한 판매대에 대한 개선은 미흡했다.

브랜드디자인학회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약 75%가 진열상

품의 위생과 청결, 진열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불편하다고 밝힌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품명과 원산지 확인, 눈높이 보다 낮은 판매대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시는 우선 8월 중 개방형 상점이 밀집한 전통시장 1곳을 선정해 시장 내 약 60개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대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7월 21일 (수) 음력 : 6월 12일

수도권 날씨 26~3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예보: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막말 파문’ 日소마 정기인사 형태로 교체 예정...사실상 ‘경질’
▲중국에 ‘해킹 망공’ 나선 바이든... “中, 해킹범 보호해” /사진 뉴스1

▲中 코로나 신규감염 65명 ‘급증’·본토 원난성 8명...무증상 19명
▲獨, 대홍수 사망자 최소 165명...정부 ‘부실 대응’ 비판



▲美 ‘의회 난입 사태’ 첫 중죄 선고...징역 8개월 ‘실형’
▲BTS, ‘버터’에 이어 신곡 ‘퍼미션투댄스’도 빌보드 1위 /사진 뉴스1